



PRESS RELEASE

세계적 플로럴 아티스트 제프 리섬과 협업 제네시스, <블룸타니카: 자연과 혁신이 만나는 곳> 전시 개최

-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에서 생화와 디지털 기술 결합시킨 꽃 전시회 열어
- 한국의 정원 및 자연에서 영감 받은 꽃 전시물과 제네시스의 차량 함께 전시
- 오는 6월 9일(일)까지 개최 예정…제네시스만의 특별한 고객 환대 철학 강조
- “다양한 경로 통해 글로벌 고객에게 한국의 미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

제네시스 브랜드가 세계적 플로럴 아티스트 제프 리섬(Jeff Leatham)과 함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한다.

제네시스는 오는 6월 9일(일)까지(현지시간 기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에서 ‘블룸타니카: 자연과 혁신이 만나는 곳(Bloomtanica: Where Nature Meets Innovation)’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의 정원 및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점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와 세계적 플로럴 아티스트인 제프 리섬이 협업했다는 점에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5월 초 개장 이후 약 2주만에 1만 6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제프 리섬은 포시즌스 호텔(조지 V 파리, 베버리힐스, 필라델피아)의 아티스틱 디렉터이자 수석 플로럴 아티스트다.

전시가 열리는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은 한국적 럭셔리를 지향하는 제네시스의



PRESS RELEASE

브랜드 철학이 담긴 공간으로, 2021 년 개관 이래 ‘도심 속 문화 오아시스’를 표방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제프 리섬과의 협업을 통해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경험을 제공한다. 제프 리섬이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에서 최초로 시도한 생화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전시회를 관람하며 관람객은 초현실적인 감각을 체험함과 동시에, 전시물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있는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다.

전시는 1 층 쇼룸과 지하의 셀러 스테이지에서 이루어지며, 동시 입장객 수를 제한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관람객은 입장 시 전문 큐레이터의 도움을 받는 등 제네시스만의 고객 환대 철학을 경험할 수 있다.

쇼룸에는 제네시스 차량들과 함께 제프 리섬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짙은 보라색 계통의 꽃을 활용한 장식들이 전시돼 있으며, 꽃 장식물들과 제네시스 차량의 디자인이 어우러지며 독특한 미감을 선사한다.

셀러 스테이지에는 한국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산책길 및 산책길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영상으로 구현돼 있으며, 개화에서 낙화까지의 과정을 LED로 재현해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무궁화에서 영감을 받은 분홍색 ▲한국의 밤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은 보라색 ▲제주도에서 영감을 받은 주황색과 노란색 등形形色색의 꽃들이 전시에 활용돼 색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특히, 보라색과 주황색은 지난 3 월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에서 공개된 ‘네오콘셉트’와 고성능 ‘마그마’ 프로그램의 색상과도 일치해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이 밖에도 관람객들은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 2 층의 레스토랑에서 화이트



PRESS RELEASE

코스모폴리탄 베이스에 꽃 얼음으로 장식된 플로럴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은 “한국의 정원에서 영감 받은 이번 전시회가 고객 접점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글로벌 고객들에게 한국의 미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 리섬은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과 함께한 이번 협업은 놀라운 여정”이라며 “자연과 기술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번 전시는 다채로운 문화 공간을 표방하는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과 꽃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을 통해 향후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사할 예정이다.